

세월호 두 달... 벌써 잊었나

르포 전남 연안 여객선 타보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신안 비금도를 떠나 목포 북항 선착장을 향하던 '비금농협 카페리호' 3층 선원실 안에서 선장(왼쪽 사진 가운데)이 화물차주 등과 뒤섞여 화투를 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목적지 도착을 40~50분 앞두고 여객선 1층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고박(결박)하는 장치가 선원들에 의해 풀린 모습. /목포·신안=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장은 화투치고 화물·차량은 결박 안돼 흔들... 해경, 감시조차 안 해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2명 사망 292명
※ 세월호 참사 61일째
15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그날의 기억은 벌써 지워지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뒤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잊지 않겠다"는 각오는 60일이 지나면서 벌써 흐릿해졌다. 달라진 것도 없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가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탐승 절차를 강화하며 부산을 떠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4월16일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연안 여객선은 여전히 '대충대충'의 부실한 안전 의식을 버리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운항을 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의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근무 행태도 바뀌지 않았다. 감시의 눈을 부릅뜨야 할 해경 등 안전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도 변한 게 없었다.

탐승 때 승객들 신분증 확인 '대충 대충'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안내방송 없이 출발

◇선장은 선원실서 화투판=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목포와 신안 비금도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 비금농협 카페리호에 올랐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가 강조했던 '달라졌다'는 연안여객선 안전실태를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다.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가족 단위 승객 50여명을 태우고 출발한 여객선(최대 승선인원 184명·307t)은 도착할 때까지 "곧 도착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한 것이 전부였다. 비상대피로, 구명조끼 위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의 행동 요령 등 필수적 안내방송은 커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방송조차 없었다.

선원들의 행태도 가관이었다. 여객선이 비금도를 들렀다가 목포로 되돌아오는 순간, 보란 듯 문이 활짝 열린 선원실에서는 선장 등 선원들이 화물차주로 보이는 승선객과 뒤섞여 화투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만원 짜리가 선원실 바닥을 굴러다녔고 일부 선원은 화투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선원실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조타실에 있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운항 중 여객선을 돌며 불편한 승객이 있는지 살펴보는 승무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목포를 출항했을 때 '홀라'를 쳤던 것만 달라진 풍경이었다.

비금도를 자주 찾는 승객은 "선원실에서의 화투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하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로 선원들 자신들만 피곤하게 됐다는 푸념을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고 했다.

◇'출항 전 안전점검' 강화, '말뿐'= 여객선 출항 전 해운조합 등 운항관리자는 해경의 협조를 받아 선장 입회하여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6월1일부터 연안 여객선 승선절차와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항공수준으로 확 바꾼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여객선의 경우 규정된 화물 무게 이상을 실지 않았는지와 승선 인원이 적정인지, 화물은 제대로 결속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출항 전 안전 점검'은 아예 무

시했다. 비금도를 출항할 때 현장을 점검해야 할 해경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출항 당시 일부나마 고박 장치에 결속돼 있었던 화물차, 승용차 바뀌는 도착하기까지 40~50분을 남겨놓자 선원들이 돌아다니며 모두 풀어버렸다.

120인실과 64인실 등 2개의 객실에 설치된 미니 자판기와 소화기, 화재 쓰레기통은 변변한 고정 장치도 없었다.

◇탐승 점검 결할기, 신분확인 대충대충=정부의 승선권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목포 북항 선착장을 출항하는 '비금농협 카페리호' 승선 절차도 전산 발권 시스템에 따라 진행됐다. 신분증 확인 절차도 강화돼 매표소에 신분증을 제출한 뒤 승선객 인적사항이 적힌 승선권을 받고 탐승이 이뤄진다. 하지만 배에 타려는 승객과 승용차 등이 물리면서 혼자서 승선인원을 점검하던 승무원은 일일이 신원을 대조하기는 커녕, 승선표를 받는데만 급급했다.

세월호가 부실한 승선권 확인 절차로 현재까지도 탐승객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목포·신안=김형호기자 khh@

불붙은 '7·30 재보선'

새정치, 공관위 주내 가동
與 이정현 순천·곡성 출마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부터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다.

여기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순천·곡성 재보궐선거 출마 결정을 내리는 등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 움직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5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7월 초순까지 7·30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주부터 공관위를 가동, 예비 후보 접수와 자격 심사 등에 나서고 경선 방식을 등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광주·전남 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략공천의 후폭풍이 시달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떠한 공천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번 주 순천·곡성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수석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순천·곡성 출마 결정을 굳혔으며 곧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후보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도 자당 의원(김선동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였던 순천·곡성을 재탈환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한번에 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었다"며 "입지자들이 많아 전략공천보다는 경선 가능성이 높을데다 민심의 흐름이 변화로 집약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경제부총리 최경환... '탕평'은 없었다

각료 7명 교체... '중폭 개각'
호남 이기권 고용노동 유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최측근 인사인 최경환 새누리당(3선) 의원, 신실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등 각료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프로필 4면>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중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 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재선)이 각각 내정됐다.

유일한 호남 출신인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함평이 고향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맡고있으며 고용부 차관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적쇄신의 바람을 타고 정부출범 15개월 만에 제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 인사로 2기 내각은 수도권 출신 6명, 대구·경북(TK) 4명, 충청과 부산·경남(PK) 2명, 호남·강원·평북 각 1명이 됐다. 1기 때와 비교하면 수도권이 8명에서 다소 줄었고 TK 출신은 그대로다. 호남은 2명에서 1명이 됐지만 PK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의 월드컵 (17일·한국시간)

	독일	G조		포르투갈
오전 1시·KBS2, MBC, SBS				
	이란	F조		나이지리아
오전 4시·MBC, SBS				
	가나	G조		미국
오전 7시·KBS2, SBS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변성호 플루트 독주회
6월 16일(월) 7:30pm
진리관 4층 콘서트홀 062-605-1130
광산대학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오동 해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기의섬오동

해수욕장명	위 치
신지명사십리	신지면 신 리
금일해당화해변	금일읍 월송리
동고해수욕장	신지면 동고리
가사동백송	약산면 가사리
지리청송해변	청산면 지 리
신흥해수욕장	청산면 신흥리
예송갯돌해변	보길면 예송리
중리은모래해변	보길면 중 리
통리술밭해변	보길면 통 리
금곡해수욕장	생일면 금곡리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